

제6회 전국양돈인대회 성황리에 개최

「재벌기업의 축산업 참여 금지」 등 축산법 개정 촉구



전국의 양돈인 지역대표자 2천여명은 양돈산업의 발전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재벌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는 축산법 개정과 축산물가격안정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사항 관철을 위해 적극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본회는 지난 11월 17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대한생명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양돈인 지역대표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전국양돈인(정책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과 돈가하락 등 양돈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양돈산업 발전과 양돈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양돈인들이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결의를 다지는데 목적을 두고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본회 전동용 회장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종기 의원을 비롯해 김종호 의원(민정), 남재희 의원(민정), 안병규 의원(민정), 이영문 의원(민정), 신재기 의원(민정), 서경원 의원(평민), 강보성 의원(민주), 박경수 의원(민주), 박태권 의원(민주), 정일영

전국 2천여 지역 양돈인 대표 6개항 결의

1. 대책없는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 결사반대
2. 「재벌기업의 축산업 참여 금지」 축산법 개정
3. 생산원자재의 관세·부가세 면제 등 제도개선
4. 축산물가격안정법 등 가격안정제도 수립
5. 자율적 생산조절 및 자조금제도 입법 실현
6. 양돈경영의 합리화와 국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 할터

의원(공화), 이종근 의원(공화), 이기빈 의원(무소속) 등 국회의원 13명과 지설하 국립중축원장, 정창국 대한수의사회장, 최맹저 축산기업조합 중앙회장, 심상범 서울경기 양돈조합장, 윤봉중 축산신보 사장, 박신희 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 기타 축산관련 기관·단체 인사 150여명과 전국의 양돈인 지역대표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부「기념식 및 결의대회」, 제2부「기념특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전동용 회장은 행사에 앞서 지난 1년간 양돈산업과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전남도협의회 소속 안국환 회원에게 조직발전부문 양돈대상을, 경기도협의회장 이명복씨에게 제도개선부문 양돈대상을 수여했으며, 서울지부 이갑용씨를 비롯한 19명의 회원에게 모범양돈농가상을 수여했다. 또한 전동용 회장은 제2검정소 건립을 위해 협회에 많은 지원을 해준 경남 하동군청 황영상 산업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전동용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림픽을 마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제, 「양돈업도 개방

화·자율화·민주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은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다」고 전제, ▷대책없는 농축산물 수입개방 반대 ▷축산법 개정 ▷국제경쟁력 향상에 저해되는 각종 악법과 제도개선 ▷양돈인들의 단합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전양돈인의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

전 회장은 농축산물 수입개방 문제와 관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개방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히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은 농민의 생존권과 삶의 공간 침해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지은 후, 「정부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앞서 축산물 생산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생산·유통·저장·가공·소비분야에 대한 재정투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성장산업으로 육성한 후에 수입을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 회장은 축산법개정 문제와 관련, 「'84년도에

제6회 전국양돈인(정책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 대회)



제6회 전국양돈인 대회 수상자 내역

포 상 구 분	소 속	성 명	농 장 명	
양돈 대상	조직발전부문 제도개선부문	전남도협의회 경기도협의회	안국환 이명복	나주종돈장 명주농장
모범양돈 농가상	서울지부	이갑용	덕흥농장	
〃	강화지부	나병열	유석농장	
〃	광주지부	김병삼	영진농장	
〃	춘천춘성지부	이애자	새벽농장	
〃	영동지부	조보형	신일농장	
〃	보은지부	최석근	대승농장	
〃	진천지부	한기순	승주농장	
〃	홍성지부	김병문	홍성종돈장	
〃	공주지부	김한영	안양농장	
〃	전주완주지부	김경조	평화농장	
〃	군산옥구지부	최희오	희오농장	
〃	화순지부	조영송	다니엘농장	
〃	광주지부	김용주	금호농장	
〃	영천지부	김성곤	황정농장	
〃	영주영풍지부	장용덕	덕용농장	
〃	밀양지부	윤혁태	임마뉴엘유축농산	
〃	마산지부	장태환	신홍축산	
〃	김해지부	김봉하	경암축산	
〃	제주지부	백용욱	백마농장	
감 사 패	하동군청	황영상	하동군산업과장	

재벌기업의 양돈참여를 규제하기 위해 축산법이 개정되었으나 재벌양돈은 각종 특혜로 보호되었고, 보호되어야 할 중소양축가는 오히려 각종 규제로 많은 고통과 수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이의 해결방안으로 ▷양돈업 등록제 폐지 ▷재벌기업의 신규 양돈참여 강력 규제 ▷양돈업 상한선 설정을 통해 불균형적 양돈산업 구조와 불공평한 분배 등 구악을 일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은 국제경쟁력 향상 문제와 관련, 「현재 양돈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는 양돈사료에는 높은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수입쿼터제도, 농장자가배합사료 불허 등으로 인해 20~30%의 생산비 인상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사료 관세·부가세 면제와 불필요한 사료수입쿼터제, 곡류 배합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농장자가배합사료공장을 허가하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전 회장은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 문제를 비롯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물 가격안정법을 제정하는 한편, 도축부산물의 경매제도 시행과 지육의 전자경매 실시 및 계류장 확대 설치를 요구했다.

끝으로 전 회장은 양돈인의 단합 문제와 관련, 「지금



집에 큰 불이 나서 타들어오고 있는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안 나르면 누가 불을 꺼 주느냐"고 반문하고, 「전체 양돈인을 공동운명체라는 인식과 우리가 이 산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새로이 해 줄 것」을 양돈인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개최중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여러 위원과 함께 양돈인대회에 참석한 김종기 위원장은 내빈을 대표한 축사에서 「입법부를 대표해 축사를 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하고, 「축산물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소비량의 증가로 양돈산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종기 위원장은 「양돈업계의 문제점은 주기적인 가격불안과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개방 압력」이라고 전제한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양돈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돈산업의 내실화와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양돈인들에게 ▷자율적인 수급조절 ▷유통개선을 통한 제값받기 운동 ▷자조금제도를 실시하여 스스로 권익보호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당국에 대해서는 ▷축산원자재의 관세 및 부가세 감면 ▷재벌의 양돈산업 참여 금지 ▷지속적인 돈육 소비홍보와 수출확대에 주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입법부에서도 축산법 개정, 자조금제도를 비롯한 현재의 모든 양돈현안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2천여 양돈인 지역대표들은 본회 이상훈 음성지부장의 선창으로 ▷대책없는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결사 반대 ▷「재벌기업의 축산업 참여 금지」 축산법 개정 ▷생산원자재의 관세·부가세 면제 등 제도개선 ▷축산물가격안정법 등 가격안정제도 수립 ▷자율적생산조절 및 자조금제도 입법 실현 ▷양돈경영의 합리화와 국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1부 기념식 및 결의대회가 끝난후 「개방화 시대를 맞는 양돈인의 자세(고려대 송기철 교수)란 주제의 기념강연을 경청하고 여의도 광장에서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한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및 제값받기 전국 농민대회」에 참가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주산업(주)(대표 : 정은섭)에서 협찬했으며 윤길중 민정당 대표위원,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 민정당 김윤환 의원, 남재희 의원, 안병규 의원, 평민당 김영진 의원, 장태현 농수축산신문 사장, 류달영 한국 농축수산유통연구원장, 최맹저 축산물기업조합중앙회장, 심상범 서울경기양돈조합장, 김길원 한국바이엘화학(주) 사장, 김상용 삼양사 사장, 폴벨텔레겐(주)퓨리나코리아 사장, 전남수 우성사료 사장 등이 화환을 보내 본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특히, 대주산업(주)은 행사협찬과 함께 참석자 전원에게 여행용 가방을 선물로 증정했다.*

취재 : 김동성